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선발

- 공개전산 추첨 방식으로 1,837명 선발
- 총 16,240명 지원, 평균 8.8대 1 경쟁률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9월 1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에 입영할 카투사 1,837명을 전산추첨으로 공개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참석자 중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6,240명이 지원하여 평균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월별 지원 경쟁률]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발 (계획)	1,837	167	167	167	167	167	-	167	167	167	167	167	167
경쟁률	8.8:1	10.9	10.8	10.0	9.5	9.0	-	8.6	8.3	7.6	7.5	7.5	7.5

선발 결과는 오늘(1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 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참관하여 공개선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들께 신뢰받는 병무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책임자	과 장	이상용 (042-481-2713)
		담당자	사무관	양재원 (042-481-2719)

